국외출장 결과보고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출장 결과

◆ 기　　간 : 2015. 5. 6(수) ~ 10(일), 3박 5일

◆ 방문국가 : 터키(이스탄불, 앙카라)

2015. 5.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출장 개요 ········ 1

Ⅱ.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가 ···························· 2

붙임 1. 발표자료 ·· 10

붙임 2. 영문 스크립트 ·· 18

붙임 3. 국문 스크립트 ·· 29

Ⅲ. 방송사 및 방송규제기관 방문 ························· 40

1. TRT 방문 및 면담 ·· 40

2. RTÜK 방문 및 면담 ·· 43

붙임. 보도자료 ·· 47

Ⅰ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 회의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터키 정보통신기술청이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에 참석하여 “모바일의 미래 : 4G를 넘어서”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

*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nce

o 터키 라디오·TV 고등위원회 및 국영방송사를 방문하여, 한국과 터키의 방송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 논의

2. 출장 국가 및 기간

o 출장 국가 : 터키(이스탄불, 앙카라)

o 출장 기간 : 2015. 5. 6(수) ~ 5. 10(일), 3박 5일

3. 주요 활동

방문지	주요 활동
터키 이스탄불 (5.6~5.8)	o 터키 정보통신기술청 주관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 및 세션 발표
터키 앙카라 (5.8~5.9)	o 터키 라디오·TV 고등위원회 방문/면담 o 터키 지상파 국영 방송사(TRT) 방문

4.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KCC)	위원장	최성준 (Choi, Sung Joon)	
	국제협력팀장	박명진 (Park, Myung Jin)	
	위원장 비서관	권영재 (Kwon, Young Jae)	
	국제협력팀 주무관	이선아 (Yi, Seon 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선임	박순태 (Park, Soon Tae)	
	통역사	김계형 (Kim, Gye Hyung)	

Ⅱ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가

1. ’15년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 개 요

o 일 시 : 5. 7(목)~5.8(금), Marmara Taksim Hotel(이스탄불)

o 주 제 : “Future of Mobile : 4G and Beyond”

※’14년 “Impact of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on Market Regulation”
’13년 “Future and development direction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

o ’06년부터 매년 터키 정보통신기술청(ICTA)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통신규제기구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방송통신주제에 대해 각국의 현황을 공유하는 회의

- ‘Black Sea and Caspian Regulatory Conference’에서 ‘12년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ce’으로 명칭 변경

o 참가대상

- 규제기관 : 레바논, 카메룬, 인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스리랑카 등

- 국제기구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CEPT(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시민단체 및 통신 사업자

o 세션 구성

- 대주제에 따라 규제기관, NGO, 국제기구, 통신사업자 등 영역별로 5개 세션으로 구성됨

2. 발표 세션 개요 및 주요 내용

□ 발표 세션 개요

o Regulators′ Session I 참가자

- 좌장 : 레바논 통신규제청장 Imad Hoballah
- 발표 : 한국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프간 통신규제청장 Abdul Waki Shergul
  카메룬 통신규제청 국장 Jean Louis Beh Mengue

o 진행 방식

- 좌장이 전체 내용 소개
- 각 발표자당 15분 내외 발표
- 질의 응답

□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

1) 한국 방송통신위원장 발표 (붙임 참조)

2) 카메룬 통신규제청 국장 Jean Louis Beh Mengue 발표

o 카메룬의 3G 네트워크는 Viettel Cameroon이 ′14.9.15에 상용화함 현재 1,500만 개의 2G 및 3G 심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커버리지 및 서비스 품질 등에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함

o 그러나 인터넷 가입자, 스마트폰 사용자, 다양한 통신 서비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3G/4G 네트워크 구축 단계이지만 5G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음

o 5G 도입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소비자 경험 개선, 네트워크 성능 향상, 사물인터넷,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이 가능해질 것임.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자원 계획 측면에서 도전과제가 될 것임

o 5G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이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따라서 카메룬과 같은 국가에게 5G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무엇이 될지 생각해 봐야 함

o 카메룬의 5G 도입은 2020년 도쿄 올림픽 직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3G/4G 네트워크 개발이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검토해 5G 도입의 비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아프간 통신규제청장 Abdul Waki Shergul 발표

o 현재 3G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4G 네트워크용 스펙트럼을 배분할 예정임. ICT 발전이 경제적 우선사항이 아니었으며, 상호 접속, 국제전화가 불가능했고, 보안 문제도 심각했음

o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되었고, ’12년에는 브로드밴드 사업권을 부여하고, 5개 이동통신사와 지상파 디지털 방송사를 설립함. 11개 지역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국민 89%에 광대역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임

o 트래픽 증가로 인해 무선 네트워크가 포화 상태에 달해, 광네트워크 백본 구축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2025년까지 5TB/S로 네트워크 트래픽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o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국가기간망 구축을 했음. 3G 서비스용 주파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지역 광네트워크 규제를 완화해 보급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o 4G 이후 전통적인 방송-통신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유무선 통신 간 비즈니스 모델 구분도 무의미해짐에 따라, 부처 간 규제당국 간의 보다 복잡한 조율과 새로운 정책 및 접근방식을 필요로 함

o 디지털 TV 및 IPTV로의 전환은 '13～'19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봄. 지상파 디지털 전환 및 3G/4G/5G 등 네트워크 도입은 상세한 계획이 필요

o 전기부족, 치안, 인력 부족, 규제완화 필요, 부처 간 협력 개선 등이 도전과제임. 4G 도입이 고용확대 등 아프간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 필요

4) 질의 응답

Q1. 한국의 빠른 LTE 구축/보급이 가능했던 비결과, 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관점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A1. 한국의 3개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함. 3위 사업자가 단말기 공급 문제로 3G를 건너뛰고 바로 LTE에 투자를 시작했고, 1· 2위 사업자도 더 LTE에 투자를 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음

o 한국 국민들은 모바일 접근권 및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해 LTE의 전국적인 보급이 필요했음. 또한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이로 인한 통신비 지출로 3개 이동통신사들은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음

o 3개 사업자 간 공정경쟁 유도가 사후규제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임. 이를 위해 많은 정책을 연구 중이며 그 효과를 점차 보고 있다고 생각함

o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3개 이동통신사 모두 요금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음성 및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중심의 요금제로 변화할 것으로 생각함.

Q2. 한국의 5G 도입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함

A2. 5G 도입으로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4G 기술이 5G에 가깝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5G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고, 올해 연말쯤 보다 상세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Q3.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발전이 유선 브로드밴드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A3. 한국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발전은 유선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함.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집에서도 PC가 아닌 휴대폰으로 하고 있음. 모바일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한 기기가 보급될수록 유선 인터넷은 위축될 수 있음

Q4. 네트워크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A4.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LTE 및 LTE-A의 망 구축이 잘 되어 있음. 한국의 3개 통신사업자가 각자 망 구축을 했음. 하나의 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o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G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는 5G로 가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이 각자의 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가 】

<터키 정보통신기술청장과 환담>

<세션1 발제>

<청중 질문 답변>

<기록 영상 인터뷰>

< 붙임 1, 영문 발표자료>

Korea's Mobile Telecom Market Status and Outcome

Mobile Telecom Pene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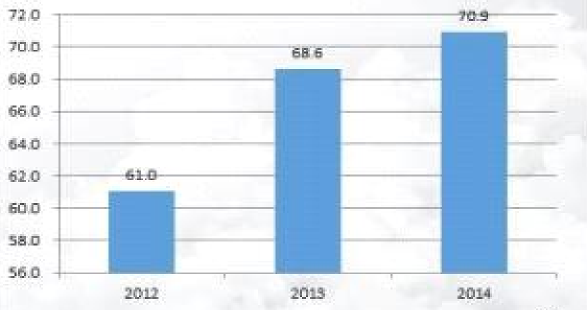
- Mobile telecom service peneration has increased every year, reaching 113.5% (end-2014)
  - No. of mobile subscribers has grown by 5.4% (CAGR) between 2001-2014

<Mobile telecom penetration and No. of subscribers (million, %)**>**

Mobile Internet Utilization

- 70.9% of mobile telecom subscribers were using smartphones (end-2014)
  - 98.3% of mobile internet users use smartphones
  - Accessed 12.8 times, a total of 1.44 hours per day
  - For information collection, communication and pastime activities

<Smartphone users (%)>



2

LTE Service Market Status and Out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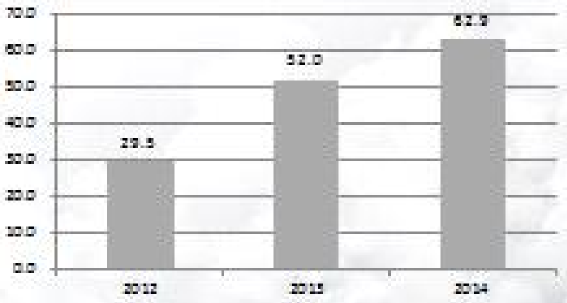
- Commercial launching of 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type LTE service on 2011. 7. 1. Nation-wide LTE network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n April. 2012
  - Allocated spectrums : 850, 900, 1800, 2100, 2600MHz
  - Seeking faster services through broadband, CA (Carrier Aggregation), etc.

<LTE service history by telecom operator>

	SKT	KT	LG U+
Commercialization	2011. 7.	2012. 1.	2011. 7.
Construction of nation-wide LTE networks	2012. 4.	2012. 4.	2012. 3.

- LTE coverage reached 95%. No. of LTE subscribers reached 62.9% (end-2014)
  - The share in the mobile telecom service market continues to increase

<LTE penetration (%)>



3

Preparation for the 5G Era

- Established the Future Roadmap for 5G Services' (2015. 12)
- Aiming to demonstrate pilot 5G service in '18, and commercially launch in '20
  - Demonstrating next-generation Personalized SNS before 5G network building
- Aiming to develop 5G core technologies and seek joint int'l research

< Evolution of Mobile Telecom Technologies>

4

Preparation for the 5G Er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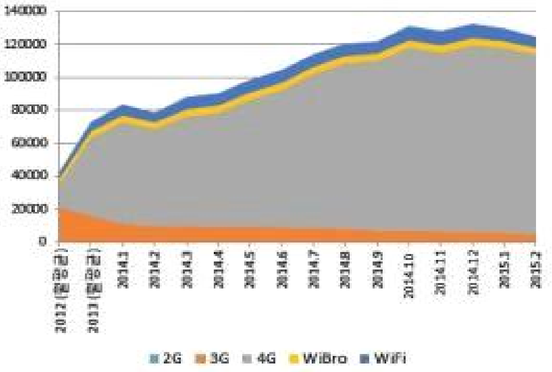
How 5G will be different?

Explosive Data Traffic Growth and Technology Outlook

Data Traffic

- With 4G commercialization and expansion, mobile data traffic volume has continued to increase [124,423TB as of Feb. '15]
  - 4G services take up 87.9% of total mobile data traffic
- Expected to increase to 444,000TB in '20

<Mobile Traffic Volume Per Tech. Type [T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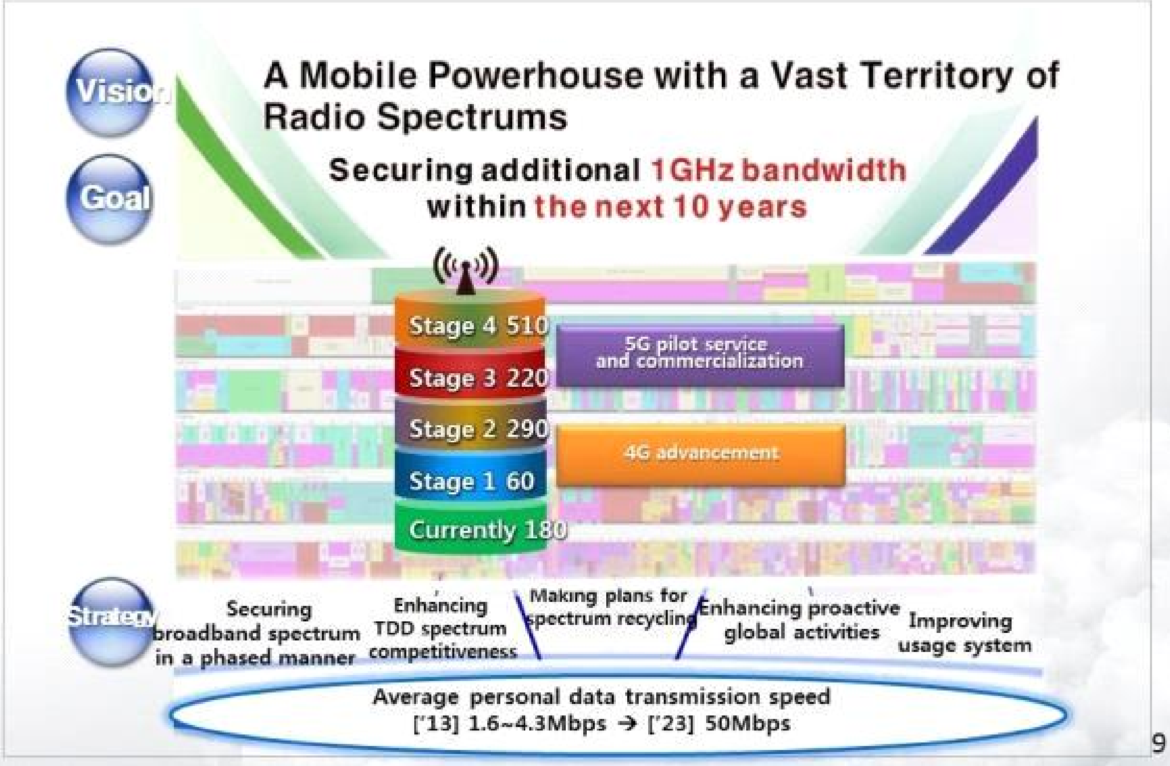


Technology Outlook

- [4G] LTE-Advanced service launching in '13
  - Maximized spectrum usage efficiency through [CA]*
    - Carrier Aggregation : merging spectrums in different bandwidths to use them like a combined increased bandwidth
- [5G] uses higher frequencies than 4G, and advanced 5G technologies [i.e. small cell] will be developed
  - 5G vision and standardization being discussed at ITU, and detailed tech standardization expected to begin at IEEE in '15

8

Spectrum Assignment Plan



9

Fair Competition

- Fast–changing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nd challenges
  - After 4G introduction, there has been **a paradigm shift in ex-post regulations regarding fair competition**

1

※ Korea's ICT industry ex ante regulation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Ex post regulations: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Important to create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to prevent mobile market dominance from influencing new bundle services

※ Relevant policies: Fair competition standards for bundle services, improving penalty systems for bundle services, etc.

2

- Creating a sound terminal distribution structure is the key to fair competition policies

Widespread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using a subsidy rather than seeking healthy competition aiming at price reduction and quality enhancement

※ Relevant policies: Enhanced telecom market monitoring, creating a fair trade system between mobile carriers and distributors, etc.

10

User Protection

Enhancing User Capabilities

To help users prevent future damages themselves as incidents become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 Smart media and damage prevention education for information have-nots
- Better information provision to help the public make informed decisions

Tackling user damages per incident type

Proactive monitoring is important to identify in advance and monitor incidents by type (i.e. SNS)

- Improving the market monitoring system
- Enhancing ex ante monitoring efforts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ncreasing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is more important than regulating individual mobile carrier issues

- Encouraging voluntary efforts of telcos to eliminate malpractices in the makret
- Promoting self-regulations for sales activities

11

Current Status of Mobile Cr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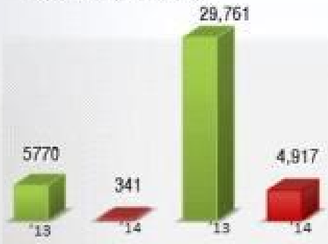
Voice Phishing

-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technical difficulties in prevention
- Enhanced awareness for prevention is required

< Damage amount (KRW 100M) > < No. of cases >

Smishing

- Is decreasing thanks to strengthened efforts (i.e. built-in anti-smishing app)
- Total amount of damage is relatively smaller



< Damage amount (KRW 1M) > < No. of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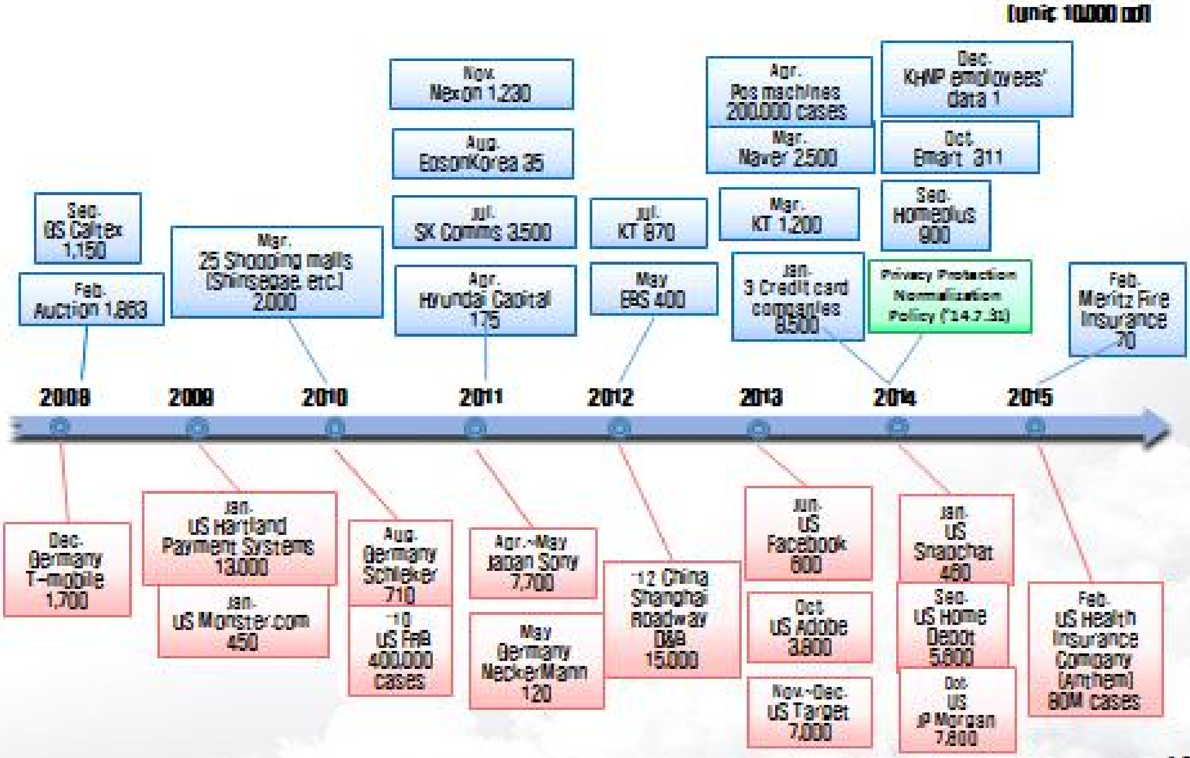
Spam

- Spam report has been decreasing→ But, gambling and adult entertainment spams are increasing
- Targeted spams using leaked personal data

< Spam reports per year (10,000 cases) >

12

Major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13

Korea's Efforts

Phishing & Smishing

- Blocking calls impersonating public organizati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13.1~)
- Built-in vaccine app ('13.8~) and anti-smishing app ('14.9) for new smartphones
- Pilot service for identifying SMS sent from web (SKT, '13.10~), Expanding to all mobile operators ('14.7)

Spam

- Installing a 'Easy Report' function on mobile phones ('07. 2~)
- Seeking to introduce mandatory subscription to a spam filtering service on mobile phones ('10.12~)
- Introducing an opt-in system for all mediu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ct ('14.11)

Personal Data

- Monitoring of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regarding smartphone apps (year-round)
- Searching and deleting personal data on the web as well as postings about personal data trading (Korea-China Internet Cooperation Center)
- Establishing the Guidelines on Big Data Privacy Protection ('14.12)

14

Conclusion and Suggestions

- Regulators need to act more promptly and flexibly in this ever changing mobile environment

- In today's mobile environment, user protection requires concerted global efforts
- Sharing of best practices, experiences, and information among regulators is required for joint response
- Need to establish int'l standards and to create a dedicated int'l organization for concerted and unified global response

- Aiming to join global efforts by sharing Korea's experiences and the lessons learned

15

< 붙임 2, 영문 스크립트 >

[Slide 1]

First of all,
I am very delighted and honored to speak here at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nce. I truly believe this gathering is very important and opportune for us, regulator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visions to better cope with this ever changing communications environment around the world.

I thank the government of Turkey and the conference organizers for inviting me.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Korea's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 situation and our preparation for the 4G era and beyond.

[Slide 2]

□ Penetration rate of the mobile telecom services

First of all, let me explain to you about Korea's mobile telecom market.
Korea's mobile telecom service penetration has increased every year, reaching 113.5% as of the end of 2014.

In addition, the number of mobile subscribers has increased at an average of 5.4% per year between 2001 and 2014.

□ Mobile internet usage status

When we look at the utilization of mobile internet in Korea, as of the end of 2014, 70.9% of mobile subscribers are using smartphones.

In addition, among those using mobile internet, 98.3% access the internet using their smartphones, and in terms of usage frequency, mobile internet users access the internet 12.8 times a day for 1 hour and 44 minutes in total.

Most of the mobile internet users use it ‘to acquire data and information’ and ‘to communicate.’

In particular, watching videos on mobile devices is common among not just the young people but people of all age groups.

In Korea, the number of OTT subscribers was estimated to be 20 million in 2014. As wi-fi and LTE services work without any hindrances on the subway, watching videos and playing online games on smartphones or tablets while on the train is common in Korea.

[Slide 3]

□ LTE service development in Korea

Now, let me move onto the status of LTE services in Korea.
In July 2011, an FDD-type LTE service was commercialized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nd in April 2012, all 3 major telecom operators of Korea successfully established nation-wide LTE networks.

In the second quarter of 2013, heated competition regarding LTE-A and broadband LTE began, and at the end of last year, 3 major mobile telcos in Korea completed the commercialization of 3 carrier aggregation (CA) LTE services and are now searching for supporting devices.

☐ LTE coverage and penetration

At the end of 2014, LTE coverage reached 95% in Korea, and the average download speed was 17Mbps. Currently, 62.9% of mobile subscribers are using LTE services, and the figure is expected to exceed 75% within this year.

Korea has already commercialized Giga Wifi with the speed of 800Mbps and will launch the Wi-Gig service with the speed of 7Gbps, which is 9 times faster than the Giga Wifi,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lide 4]

With the widespread use of LTE services, we are preparing to launch the next generation mobile service, 5G.

☐ Preparation for 5G service launch

Right now, we are planning to increase users' attention by demonstrating next generation personalized SNS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5G network construction.

As 5G will transform people's lives completely, it is not just a simple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the beginning of a new era.

When 5G, which is drastically advanced in terms of data transmission speed and frequency efficiency compared to the current mobile communications system, is introduced, Giga mobile internet, which is 10 to 1,000 times faster than the current 4G networks will be made possible.

Consequently, high quality telecommunications service can be provided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ccelerating the convergence of industries and creating new markets based on mobile communications.

'Smartcar' technology, which allows remote-controlling without touching the steering wheel, and the 'telemedicine system' will operate more accurately and instantaneously based on faster data speed of 5G.

Also, watching live performance and sports events on 3D wide-screen will make the experience more vivid, and divers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practical smartwork system and 3D video conference will be established.

For future services such as a driverless car that utilizes IoT to operate accurately, the introduction of 5G that provides high-quality services regardless of time and location is an imperative.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the 'Future Roadmap for 5G Services' by December 2015.

In addition, pilot 5G services will be demonstrated at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and we aim to commercially launch 5G services in 2020.

5G has been selected as one of the future growth engines, so the Korean government has prepared a detailed action plan that

outlines policy and investment direction and identifies action items for the years leading up to 2020.

This plan includes projects such as developing core 5G technologies including next generation Wi-Fi and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as well as joint global research with countries like China and the EU.

[Slide 5]

☐ Explosive data traffic growth

With the launch and expansion of 4G services, mobile data traffic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4G takes up 87.9% of the total mobile data traffic.

As of February 2015, the mobile data traffic volume per month was an average of 124,423TB, and this number is expected to reach a maximum of 444,000TB in 2020.

☐ Technology outlook

In the second quarter of 2013, 3 major telecom operators in Korea launched LTE-Advanced services to which they applied a new technology that merges 3 different spectrums and therefore enhances transmission speeds by expanding the spectrum bandwidth up to 20MHz.

5G is expected to use higher bandwidths than 4G, and more advanced technologies will be developed such as a small cell. The

vision and the standardization of 5G are being discussed at the ITU, and more detail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for 5G is expected to begin in around 2015 at the IEEE.

[Slide 6]

☐ **Spectrum assignment plan**

In order to accommodate rapidly increasing mobile broadband traffic volume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lan to assign an additional 1GHz or more for mobile broadband. This plan includes assigning an additional bandwidth of 1190MHz on top of the already assigned spectrum of 390MHz, in a phased manner until 2023, thereby providing new radio spectrum for LTE TDD services, as well as re-utilizing the radio spectrum when its license expires.

[Slide 7]

☐ **Fair competition**

In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4G services, we see a fast paradigm shift in regulatory policies for fair competition in the mobile telecom market. Mainly, we are facing two big issues.

Firstly, we see unfair practices in the mobile market mostly related to bundle packages rather than individual services.

- In Korea, the market share of the number 1 market player, SK Telecom, stands at 50%. Therefore, preventing the spread of the market

dominance in the mobile telecom market to its bundle package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fair competition issue in Korea.

Secondly, creating a sound mobile device distribution structure is considered as a key fair competition policy in the Korean mobile telecom market.

- Mobile operators have continued unfair practices of stealing the subscribers of other operators by using a subsidy instead of seeking a virtuous cycle of price reduction and quality enhancement.

[Slide 8]

□ User protection

Along with fair competition policies, we have also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the user protection policies in the mobile telecom market after introducing 4G.

First, with the advent of the smart convergence era, we have seen very complicated and sophisticated user damage cases. Hence, user empowerment that allows users to prevent any future damages on their own is gaining importance.

- The KCC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olicy measures to improve user capabilities by providing user education and bridging the smart gap along with existing user protection policies.

Second, we see increasing user damage cases related to various social media services. So,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carry out proactive monitoring to identify such damage cases in advance and monitor them.

Third, in today's smart ecosystem, efficient user protection requires comprehensive cooperation among relevant industry stake holders rather than regulating each mobile carrier issue separately.

- In this regard, we are actively trying to promote self-regulation among relevant industry stake holders and to raise awareness towar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lide 9]

□ Current status of mobile crimes

With the advancement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wider usage of mobile Internet, damages coming from mobile crimes are also increasing. In most cases, personal data leakage occurs as a primary damage.

o Well-known secondary incidents include voice phishing, smishing and spam.

o Voice phishing and smishing use social engineering methods to deceive users. Hence, raising awareness toward these illegal practices is of high importance.

- Although the number of voice phishing cases is rising every year, the damages from smishing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last 2

years thanks to technical measures such as blocking of smishing texts and malicious apps downloads.

- Spam reports have continued to decline in the last 4 years, but they are becoming more clever by targeting specific age or gender groups.

[Slide 10]

☐ Major personal data leakage incidents

o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event personal data breaches by establishing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n March 2011 and providing an alternative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number of incidents has not decreased.

o The damages of data breaches are often high due to Korea's advanced IT infrastructure and the identification system based on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 The Korean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to improve the personal data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the legal system and to enhance public awareness.

[Slide 11]

☐ Korea's response

o In Korea, to prevent damages from voice phishing and smishing, it has become mandatory for mobile phone manufactures to provide built-in vaccine apps and smishing blocking apps in the mobile phone and have a standard 'Easy Report' service for reporting spams.

o In addition, mail reception agreement systems which varied depending on medium were all brought together under an opt-in system in 2014.

o The relevant authorities search for and delete personal data on the web that illegally trade personal data, an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stimulate big data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ig Data Privacy Guidelines' on December 2014.

[Slide 12]

□ Conclusion and suggestions

o This is finally my last slide. To wrap up, I would like to draw a conclusion and make some suggestions. In this ever-changing mobile environment, it is an imperative for regulators to respond in a more prompt and flexible manner.

- The issue of user protection requires more than the effort of an individual country. It requires globally coordinated efforts and response.

- As each country is experiencing unique market situations and consumer demand and the regulatory authority comes up with various new policy measure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o share their best practices, experiences, and information for a concerted and unified response.

- To this end,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lobal standards or create a dedic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effective and concerted international efforts.

- o Korea is more than willing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the measures we have taken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o cooperate with nations around the world to find the most effective solutions.

Thank you.

< 붙임 3, 국문 스크립트 >

[슬라이드1]

 우선,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에 참가하여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관계자가 모인 이 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격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를 초대해주신 것에 대해 터키 정부와 회의 주최측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현황과 4G, 그리고 그 이후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2]

□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

우선 한국의 이동통신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113.5%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이동통신 가입자는 연평균 5.4% 성장했습니다.

□ 모바일 인터넷 활용 현황

모바일 인터넷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의 70.9%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98.3%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8회, 1시간 44분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습득과 의사소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반화 되었습니다.

한국은 OTT가입자가 2014년 2,0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지하철에서도 wifi, LTE 서비스가 원활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습니다.

* 주요 OTT 서비스 가입현황 : tving(690만), pooq(300만), 올레TV모바일(460만), BTV 모바일(560만), LG U+ HDTV(700만), Hoppin(450만)

[슬라이드3]

□ LTE 서비스 추진연혁

이어서 LTE 서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FDD*방식의 LTE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2012년 4월 3개 이동통신사 모두 전국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Frequency Division Duplex : 주파수 분할 이중통신,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간 송・수신에 별도 주파수대역을 배정하는 이동통신 방식

이후 2013년 2분기에 LTE-A 및 광대역 LTE 경쟁이 시작되었고, 작년 말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트리플밴드(3CA) LTE 상용화 준비를 마치고 지원 단말기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 LTE 커버리지 및 보급률

2014년 말 기준으로 LTE 커버리지는 95%이고,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7Mbps입니다.

LTE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여 이동통신 가입자의 62.9%가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5%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와이파이에 있어서는 800Mbps의 속도를 내는 기가 와이파이가 이미 상용화 되어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 보다 9배 빠를 7Gbps 속도를 내는 와이기그(Wi-Gig)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4]

한국은 LTE 서비스 보급과 확산에 이어,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5G 서비스* 준비 현황

* 5G :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아직 공식적인 표준화는 진행되지 않음. 4세대 기술보다 트래픽 수용, 전송률, 연결 디바이스 수, 에너지 효율 등을 10~1,000배 증가시키는 것을 기술 목표로 함.

우선 5G망 구축 전에 차세대 개인형 SNS 기술을 시연하여 사용자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5G는 국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이동통신보다 데이터 전송속도, 주파수 효율 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 5G 이동통신이 도입되면 현재 4G보다 최소 10배에서 1,000배 빠른 기가 무선인터넷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소, 시간 제약 없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각 산업별 융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 실시간 무선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스마트카 기술'이라든가, '원격의료 서비스' 등이 5G의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로 인해 더욱 정교하고 즉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3D 대형화면으로 실감형 공연 관람과 가상 스포츠 체험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스마트워크의 실현과 홀로그램을 이용한 입체영상회의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5G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선 2015년 12월까지 '미래 5G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5G 서비스 도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2020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5G 서비스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정책・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실행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차세대 Wi-Fi, 단말 간 통신 등 5G 후보 핵심기술 개발 및 중국, EU 등과의 국제공동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5]

□ 데이터 트래픽 급증

4G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확대되면서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였으며, 4G가 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선 데이터 트래픽량은 2015년 2월 기준 월평균 124,423TB(테라바이트)인데, 2020년에는 최대 약 444,000TB(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 전망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처하기 위해서,

2013년 2분기 이동통신 3사는 서로 다른 대역을 묶어 단방향 20㎒ 폭까지 확대하여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적용한 LTE-Advanced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LTE-Advanced 관련 기술 용어 설명 >

- 주파수 집성기술(CA) : Carrier Aggregation, 서로 다른 대역을 묶어 연속된 대역폭처럼 활용하는 기술
- 다중안테나 전송(MIMO) : Multiple-Input-Multipul-Out, 주파수와 전력의 증가 없이 안테나 수에 비례하는 채널 용량 및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얻을 수 있는 기술로 LTE와 LTE-A 시스템의 핵심 기술
- 셀 간 협력 전송(CoMP) : Coordinated Multi Point 기술은 단말이 하나 이상의 기지국으로부터 동시에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술로 LTE-A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고속데이터를 위한 커버리지 확장 및 셀 경계에서의 전송률 증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
- 중계(Relay) : 고속데이터 전송을 위한 커버리지 확장과 셀경계에서의 전송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LTE-A 기술표준의 주요한 연구 분야로 활발하게 기술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5G 서비스는 기존 4G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소형셀 등 4G에서 진화된 기술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5G 비전 및 표준화에 대하여는 ITU에서 현재 논의 중이며, 상세기술 표준화는 국제 표준화 기구(3GPP, IEEE)*에서 2015년 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유럽과 일본 등 이동통신 관련 단체들 간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ITU의 IMT-2000 프로젝트 내의 제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규격 작성을 시작으로 현재 LTE - Advance와 관련된 표준화 연구 진행 중

*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전기전자 공학 전문가들의 국제 조직으로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150개국 35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 주요 표준 및 연구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음

[슬라이드6]

□ 주파수 공급 계획

정부는 급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 이상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이미 할당된 주파수(390㎒폭) 외에 추가로 1190㎒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LTE TDD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재활용하는 등 주파수 부족에 대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7]

□ 공정 경쟁

또한 4G 도입 이후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사후규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현안을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국의 ICT 산업은 사전규제는 미래부, 사후규제는 방통위 담당

첫째, 한국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단품보다는 결합상품 위주로 불공정 행위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정책: 결합상품 공정거래 기준 마련, 결합상품 위약금 제도 개선 등 추진

둘째, 건전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인하, 품질제고 등의 선순환 경쟁보다는 단말기보조금을 이용해 타사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열 경쟁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관련 정책: 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통사와 유통사 간의 공정거래 확립 등 추진

[슬라이드8]

□ 이용자 보호

한국은 4G 도입 이후 공정경쟁 정책과 더불어 이동통신시장의 이용자 보호 정책에서도 과거와 다른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융합 시대가 실현되면서, 이용자 피해유형과 사례가 매우 복잡하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용자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기존의 이용자보호 정책과 더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이용자 교육, 스마트 격차 해소 등 이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미디어 교육,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등

둘째,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연관된 이용자피해 유형이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피해 유형을 사전에 식별하고 감시하는 선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방통위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 사전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셋째, 스마트 생태계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사안별로 규제하기보다 연관된 산업 주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에서는 연관 산업주체 간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활성화하고, CSR*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정책 :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장정화, 사회적 기업으로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판매시장 자율규제 도입 활성화 등

*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 공헌 등 사회전체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슬라이드9]

□ 모바일 범죄 피해 현황(한국)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침해가 1차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 대표적인 2차 피해 유형은 보이스 피싱, 스미싱, 스팸 등입니다.

o 보이스 피싱, 스미싱은 이용자를 속이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보이스 피싱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스미싱은 스미싱 문자, 악성앱 다운로드 경로 차단 등을 통해 최근 2년 간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스팸 신고는 최근 4년 간 지속 감소 추세이나, 특정 성별·나이 등을 대상으로 스팸을 전송하는 등 보다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참고 피해유형 개념정의

◇ 피싱(Phishing)

o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전화로 수사기관·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물어보는 수법

o 웹사이트 피싱(Website Phishing): 은행,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 구축 후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이용자의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파밍(Pharming)

o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사이트로 접속해도 이용자 모르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

◇ 스미싱(Smishing)

o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수법

◇ 스팸(Spam)

o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통신과금 사기(Carrier Billing Fraud)

o 유선전화(ARS), 휴대전화(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콘텐츠를 구매·결제하고 전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서비스

[슬라이드10]

□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현황

o 한국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11.3월)되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o 한국은 IT 인프라가 발전되었고, 주민번호 중심의 개인식별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o 이에, 한국 정부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 및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11]

□ 한국의 대응현황

o 한국은 보이스 피싱,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기기에 백신앱과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적으로 설치하여 출고하도록 하고, 스팸 신고기능인 '간편신고'를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 스팸 신고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전달되어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중앙전파관리소로 전달되어 행정처분 등을 진행

o 스팸 전송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수신동의 방식은 모든 매체에 대해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o 또한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검색/삭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14.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슬라이드12]

□ 결론 및 제언

o 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자들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모바일 생태계 환경에서 이용자보호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 국가마다 겪고 있는 시장변화와 이용자 니즈가 다르고, 그에 따라 각 규제당국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범 사례와 경험,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간 공동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를 위해 국제표준을 마련하거나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국제 공동대응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 한국은 앞서 경험했던 피해유형과 대응기법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Ⅲ 방송사 및 방송규제기관 방문

1. TRT (터키 라디오 텔레비전)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5.8 14:00~15:00, TRT 내 회의실(앙카라)

□ 면담자 : HÜSEYUİN İŞLER TRT 부사장 등

< TRT 개요 >

o TRT (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는 1968년 설립되어 국무성 관할 하에 있는 터키 유일의 국영방송

- TRT가 제공하고 있는 10개 채널은 전국 지상파 채널 5개, 지역 채널 1개 및 위성 해외 채널 4개로 구성됨

o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TRT의 재원 및 수신료, UHD 등 신기술 관련 전망, 지상파 직접수신비율, 자체제작 비율 등을 질의하고 공동제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TRT측에서는 예산 및 재원구조, UHD 채널 신설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정부예산지원, IPTV, OTT 등에 대해 질의

□ 세부 면담내용

【재원 및 수신료 관련】

o TRT ’15년 예산은 7억 5천만 달러임. 총 재원의 49~50%는 전기세, 30%는 수신기 구입 시 내는 세금, 7~8%는 광고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 전기요금의 1%(가구당 연간 5달러 정도)와 핸드폰 등을 포함해 방송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전자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TV와 휴대전화 판매금액의 각각 16%, 8%가 세금)

【공동제작】

o 올해 2월 체결된 한-터키 FTA 협정에 공동제작 관련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실질적으로 공동제작과 관련된 협력이 일어났으면 함

- ’10년 EBS와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MoU를 체결했는데, 드라마도 공동제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UHD 등 신기술 관련】

o 방송기술의 발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가족, 뉴스, 스포츠 채널 등이 HD로 방송되고 있으며, 모든 채널을 HD로 송출할 계획임. 또한 TÜRK SAT(위성방송사)과 합작해서 UHD 채널을 개설하려고 함

【지상파 직접수신 및 자체제작 비율】

o 전체 80%가 위성을 통해 방송을 수신하고 있으며, 5%가 지상파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음

o ’08년에는 외부제작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려고 매우 노력하여 60% 정도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TRT 방문 및 면담 사진 】

<TRT 부사장 면담>

<TRT 사옥 앞 기념촬영>

2. RTUK (라디오 · TV 고등위원회) 방문 및 면담

□ 일시 /장소 : '15.5.8 17:00~18:00, RTÜK 내 회의실(앙카라)

□ 면담자 : DAVUT DURSUN 위원장 등

< RTUK 개요 >

o 라디오·TV 고등위원회 (RTUK, Radyo ve Televizyon Üst Kurulu)는 '94년 4월 라디오·TV 방송사설립 및 운영법 제정으로 민영 방송사의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설립된 민간 방송사 감독기구

- 방송 시장 관리 및 규제, 방송 사업권 발급, 방송 콘텐츠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회가 선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임

o 주요 내용 요약

- 방통위 위원장은 주파수 배분, 규제기관 간 협력, 공정경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양국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함
- RTÜK측에서는 주파수 배분, 터키 광고시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디지털전환 사례, 방송사 주파수 배분과 관련해 질의. 양 기관 간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제안함

□ 세부 면담내용

【주파수 관련】

o 전체 주파수 관리는 정보통신기술청에서 담당하고, 방송 관련 주파수는 RTUK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최근까지 800MHz를 방송용으로 사용하다가 통신기술청으로 반납했고, 4G 통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 현재 700MHz는

아직 방송용으로 사용 중이나 곧 이동통신 사용을 위해 반납해야 할 것임. 방송용 주파수가 점차 줄어듦에 따라 주파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함

【방송통신 융합 대처 방안】

o IPTV는 아직 터키에서는 초보단계이지만 곧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활발하게 사용될 것임. 방송통신 융합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청과 논의하고 있음

- 또한 터키에서도 방송, 통신 등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몇몇 기업이 시장에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선진국의 사례를 지켜보고 있는데, 양 기관 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필요가 있음

【광고 수익 관련】

o 터키도 인터넷, 모바일 광고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터키 전체 광고시장은 TV가 55%, 라디오 25%, 인터넷 19%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

- TV는 감소하고 온라인은 증가하고 있으며, 신문 등 인쇄매체는 매우 저조함. 여전히 TV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o 터키 전체 광고시장은 총 32억 리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임. 상위 10개 방송사가 광고시장의 80%, 나머지 200여개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콘텐츠 투자 등 재원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음

* 32억 리라 : 약 12억 달러 규모

【공동제작 관련】

o 앞으로는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을 넘어서, 양국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대해 공동 제작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o 공동제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가능할 것으로 봄. 최근 터키가 드라마 제작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음

- 터키인들이 드라마를 좋아해서 한 채널에 하루 6~7개의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고, 더빙되어 주변국가에 수출도 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MoU 체결 제안】

o 양 기관 간 협력증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싶음. 현재의 협력을 좀 더 조직화하여 실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문안을 교환해 한국이나 터키에서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람

- 터키는 지금까지 여러 문제로 디지털 전환을 아직 못하고 있음. 한국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고, 경제와 기술에 있어 높은 발전을 이룩했으므로 터키가 도움 받을 것이 많을 것임

- 양국 간의 협력이 다른 국가에도 모범이 되어 다른 국가와도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방문 및 면담 사진 】

<RTÜK 위원장 면담>

<면담 후 기념촬영>

<붙임 : 관련 보도자료>

2015. 5. 4.(월)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경제혁신 3개년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5년 5월 4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 박명진 팀장 (☎2110-1331)
국제협력팀 이선아 주무관 (☎2110-1334) say@kcc.go.kr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터키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 참석

- 5.7.~5.8.,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 사례 발표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력강화에 나서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터키 정보통신기술청이 주관하는 국제전기통신규제자회의(International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s Conference 2015, 5.7.~5.8.)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한다.

'모바일의 미래 : 4G를 넘어서' 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규제기관 세션의 발제자로 참가해 한국의 모바일 이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소개하고, 터키, 인도, 레바논 등 참가국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터키 라디오·TV 고등위원회, 국영방송 TRT(Turkish 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를 방문하여 양국 간 방송통신 분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